

한국 신종교의 이상적 인간관*

윤 기 봉

대진대학교

〈요 약〉

한국의 신종교는 조선후기 정치·경제·사회적 혼란기에 출현한 종교들이 그 시원을 이루고 있다.

이는 신종교의 지도자들이 기존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과 함께 이상사회의 건설을 위한 사회변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 수 밖에 없었던 점을 그 배경으로 한다.

이와 아울러 인간을 해석함에 있어서 인간존엄성의 기본 사상에 바탕한 새로운 인간 관념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존재에 대한 변화된 인식의 틀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이상사회와 이상적 인간에 대한 종교적 주장은 결과적으로 이를 신앙하는 민중들에게 대망의 종교적 이상사회를 그리게 함으로써 질곡의 삶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게 한 것이다.

핵심 주제어 : 신종교, 개벽, 군자, 인존, 이상세계

* 이 논문은 2005학년도 대진대학교 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I. 서론

종교는 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한 사회에 건전한 종교가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적 규범을 가지고 그 사회를 지도하고 이끌면 그 사회는 크게 발전, 성장하는 반면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반도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왔고 이들 종교들이 한국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이들 종교들이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종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조선사회는 유교적 가치체계를 사회의 보편적 이념으로 채택하였다.

유교주의에 입각한 종교적·도덕적 가치는 신분질서·관리임용·교육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지배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로 오면서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유교는 그 능력을 상실하기에 이른다.

조선후기는 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이 극에 달하는 등, 봉건적 사회모순이 전변화 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사회모순은 삼정의 문란과 함께 결국은 민란의 형태로 농민들의 불만과 개혁 요구를 분출시켰던 것이다.

조선후기의 사회의 변화와 혼란은 사상적 동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역할을 하던 유교가 정치의 혼란과 더불어 사상적 통일을 이룰 능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서구사상의 유입과 함께 정감록 등이 성행 하였던 바, 이는 민중들에게 신앙의 개방이라는 측면으로 강하게 다가가게 되었다.

한편, 조선후기는 대외적으로 서세동점의 시기였던 바, 서구 제국주의를 배경으로 한 서양열강들의 침입은 서구문물의 강제적인 국내 유입을 야기하였으며, 이로 인한 기층민중들의 문화적 충격현상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발생하게 된 조선후기의 종교운동은 보다 안전한 현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표상체계와 신념체계를 요구할 수 밖에 없게 된 민중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존재의미를 각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바, 미래에 대한 대망을 기약하는 종교 사상적 회귀를 추구하며 종교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함으로써 미래대망의 현실적 실현이라는 기대감을 충족하고자 한 것이다.

종교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해명과 아울러 인간 자신을 궁극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가치준거로서 기능한다.

한국 신종교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인간의 문제, 특히 앞으로 올 새 세상을 맞이할 이상적 인간과 관련해서는 각 교단의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 신종교 교조들의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간을 해석함에 있어 인간존엄성의 기본 사상에 바탕한 새로운 인간 관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조선후기의 전반적인 폐단을 시정하고 새로운 이상사회에 대한 대망을 바탕으로 창립된 근대 신종교의 교조들이 현실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밝힘과 아울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후천개벽사상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제시되는 종교적 이상세계는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되는지와 그러한 이상세계를 살아가는 이상적인 인간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교조들의 현실사회 인식과 개혁사상

신흥교 교조들은 공통적으로 기존 사회 상황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사회변동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현실사회에 대한 인식은 개혁사상을 통해 현세의 종말과 새로운 사회의 도래를 예언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

여기서는 신흥교의 교조들이 조선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수운(1824-1864: 崔濟愚)·증산(1871-1909: 姜一淳)·소태산(1891-1943: 朴重彬)의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수운이 탄생·성장하고 성도하여 종교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세계사적으로나 한국사적으로 보아 유래가 없는 혼돈의 시기였다. 우선 들 수 있는 것이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윤리 도덕의 붕괴를 들 수 있다. 유교적 소양을 갖춘 수운에게 당시의 현실은 수운이 이상으로 삼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었다.

인심과 풍속의 괴이함과 함께 삼강오륜은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²⁾ 세상 사람들은 천리를 따르지 않고, 천명을 돌아보지도 않아 근본을 상실한 지경에 이르렀으며,³⁾ 임금에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는 신하답지 못하며,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였다.⁴⁾

인간 본연의 모습을 상실한 채 모두가 원칙을 무시하고 각자가 자신의 가치기준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 효박한 세상이 되어버린 원인이라 본 것이다.

“이 세상은 요순지치라도 부족시오 공망지덕이라도 부족언이라”⁵⁾

이처럼 인륜을 저버린 사람을 수운은 ‘금수같은 세상사람’⁶⁾으로 여기고 있었던 바, 이러한 세상은 요순이 다시 나와 다스린다 해도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고, 공자와 맹자같은 유교의 성인들로서도 어찌 할 수 없는 혼돈과 무질서의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증산은 현실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증산이 주로 활동하던 시기는 동학농민운동이 실패함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극도의 혼란

2) “강산구경 다 던지고 인심풍속 살펴보니 부조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봉우유신 잊지마는 인심풍속 고이흐다(《龍潭遺詞》勸學歌)

3) “一世之人 各自爲心 不順天理 不顧天命”(《東經大全》布德文)

4) “효박헌 이 세상의 군불군 신불신과 부불부 조불조를 주소간 탄식하니(《龍潭遺詞》夢中老少問答歌)

5) 《龍潭遺詞》夢中老少問答歌

6) 《龍潭遺詞》夢中老少問答歌

상을 야기하고 있던 때였는 바, 증산의 현실 사회 인식은 우선 그의 개교 동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동학농민운동) 후로 국정은 더욱 부패하고 세속은 날로 악화하여 관헌은 오직 貧賤殘虐을 일삼으며, 儒者는 허례만 숭상하고 佛徒는 誣惑만 힘쓰며 동학은 劫亂(劫亂)을 經한 후로 위미(萎靡)를 극하여 거의 형적을 거두게 되고 西敎(예수교·구교)는 세력을 신장하기에 진력하니 민중은 고궁에 빠져 安堵의 길을 건지 못하고 四圍의 현혹에 싸여 귀의할 바를 알지 못하여 위구와 불안이 全社會에 襲來하거늘 天師 개연히 匡救할 뜻을 품으사---”⁷⁾

동학농민운동의 실패는 민중들에게 이상세계와 현실세계에 대한 괴리감을 극대화시켰으며, 이로 인한 극심한 좌절감과 함께 또 다른 대망을 갈망하게 하는 이중적 구조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하여 증산은 회의와 절망에 빠진 당시의 민중들의 심의를 충분히 파악하고 그들에게 삶의 희망과 의식의 전환과 함께 그 치유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민중들에게 다가가게 되었다. 정치가 정치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종교가 종교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현실사회가 무질서와 혼돈 그리고 좌절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한편, 유교적 사회질서를 비판하면서 유교적 가치관의 붕괴를 시사함⁸⁾과 아울러 공명첩(空名帖)을 불사르는 행위⁹⁾를 통해 기존의 유교윤리를 거부하는 사상의 일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소태산은 현실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원불교교사는 당시의 시대상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19세기 말엽부터 밖으로는 열강 여러 나라의 침략주의가 기세를 올려 마침내 세계 동란의 기운이 감돌았고, 급속한 과학문명의 발달은 인류의 정신세력이 그 주체를 잃게 하였다. 안으로 한국의 국정은 극도로 피폐되고, 외세의 침범으로 국가의 존망이 경각에 달려 있었으며, 수 백년 내려온 불합리한 차별제도 아래서 수탈과 탄압에 시달린 민중은 도탄에 빠져 있는 가운데, 개화의 틈을 타서 재빠르게 밀려든 서양의 물질문명은 도덕의 타락과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켜 말세의 위기를 더욱 실감나게 하였다.”¹⁰⁾

7) 《대순전경》 초판, 2-2.

8) “선생이 비록 지천한 사람을 대할지라도 반드시 존경하시더니 형렬의 奴子 지남식에게도 항상 존경하시거늘 형렬이 여쭙어 가로대, 이 사람은 나의 奴子오니 존경치 말고소서. 선생이 가라사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다 존경하라. 이 후로는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없나니라”(《대순전경》 초판, 4-5)

9) “설흔 한 살 되시던 신축년 가을에 집에 들어오자 선영의 공명첩을 불살으시니라”(《대순전경》 6판, 1-32)

10) 《원불교교사》, 제1편 제1장, 5.

소태산이 바라본 세계와 한국은 극도의 아노미 상태에 놓여 있었다. 국내적으로는 1910년 한일합방이 되어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교육 등 전반적인 면이 혼란하여 지도이념도 없는 상태였고 인심은 타락과 폐쇄한대로 나날을 보냈다. 세계사적으로는 1차 대전이 발발하여 국가끼리는 약육강식의 투쟁과 대결장이 되고 있었다.¹¹⁾

이처럼 소태산은 현실사회를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면에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조들의 현실사회에 대한 인식은 현세의 종말과 새로운 사회의 도래를 예언하게 하는 후천개벽사상¹²⁾으로 귀결되기에 이른다.

개벽이라는 말은 일찍이 중국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고 천지창조의 모습, 즉 천지가 처음 시작된 것을 가리켜 왔다고 전해진다.¹³⁾ 이러한 선·후천 개벽에 대한 개념들이 근세 한국의 종교사상가들에 의하여 또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수운·증산·소태산은 모두 자기들이 살았던 당시를 시점으로 하여 그 이전을 선천, 그 이후를 후천으로 우선 시대구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선천의 특징을 어둡고 미개하고 혼란한 것으로, 후천의 특징을 밝은 세계, 문명세계, 질서와 평등의 세계, 합리의 세계로 규정짓고 있다.¹⁴⁾

수운의 후천개벽사상은 위기적 현실 즉 선천의 종말을 통해 이상사회가 새로이 열린다는 종교적 사회변동의 역사관이다.¹⁵⁾

“12제국 피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태평성세 다시정해 국태민안 할 것이니
개탄지심 두지말고 차차차차 지냈어라 하원갑 지내거든 상원갑 호시절에
만고 없는 무극대도 이 세상에 날 것이니 너는 또한 年淺해서 억조창생 많은 사람
태평국 격양가를不久에 볼 것이니 이 세상 무극대도 傳之無窮 아닐런가..”¹⁶⁾

수운은 상·하원갑설을 이용하여 조선후기의 극단적인 위기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하원갑 시대라는 것은 천지운행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것이며, 암울한 선천의 현실이라는 것 또한 이 시대가 가질 수 밖에 없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혼돈속에서 천운에 의해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개벽이라고 하였다.

“흐늘님 흐신 말씀 기벽 후 오만년의 네가 또한 침이로다 너도 또한 기벽이후 노이무

11) 류병덕, 《소태산과 원불교사상》, 익산:원광대학교 출판국, 1995, 54-55쪽.

12) 후천개벽사상은 19세기의 동학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20세기 전반기 신종교의 교리체계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후천개벽사상에는 우리 민족의 종교적 이상향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13) “自開闢至于獲麟”(《史記》三皇記)

14) 김홍철, 《한국 신종교 사상의 연구》, 서울:집문당, 1989, 103쪽

15) 강영한, 한국 근대 신종교운동의 성격과 사회변동,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185쪽..

16) 《龍潭遺詞》夢中老少問答歌

공 험다가서 너를 만능 성공하니 너도 성공 너도 득의 너의 집안 운수로다 ---”¹⁷⁾

수운이 말한 대로 천지개벽 이후 오만년만에 이루어지는 개벽은 그 주기만큼이나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 당시를 개벽의 시점으로 인식했던 것은 그만큼 역사적 상황이 혼돈으로 이해되어 개벽을 필요로 했다는 절박함¹⁸⁾이 드러날 뿐 아니라, 우주순환의 법칙으로 보아도 개벽의 시점이 분명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증산의 후천개벽사상을 살펴보자.

증산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인간과 세계 그리고 우주의 근본적인 변혁, 즉 ‘개벽’을 집행한 주재자로 믿어진다.¹⁹⁾ 증산의 개벽은 “하늘도 뜨더 고치고 땅도 뜨더 고쳐”²⁰⁾서 되는 것이다. 개벽은 인간계·신명계를 포함하는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결국 증산이 행한 종교활동은 우주 전체의 질서를 다시 바꾼다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²¹⁾

증산의 우주적 차원의 개벽은 말세론이나 개벽의 시점을 강조한 데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이제 混亂無倫한 末代の 天地를 개조하여 새 세상을 열고 否劫에 沈淪한 人神을 廣度
하야 各히 安定을 누리게 하리니 往古에 未曾有라 舊宗의 繼紹도 아니며 前聖의 祖述
도 아니오 오직 내가 처음 짓는 일이라²²⁾

당시를 末代로 보고 천지를 개조하는 것이 증산의 개벽이었다. 윤리도덕이 붕괴된 혼란한 세상은 말대에 이른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서 비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하여 안정을 누리게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는 이전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것이었는바, 그 내용은 윤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개조하는 것이었다. 선천의 온갖 악폐는 상극에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그 근원적 요인을 해원이라는 원칙에 의해 해결했다고 하는 것이 그의 개벽이었다.

그렇다면 소태산은 후천개벽사상은 어떠하였는가.

소태산은 당시 사회의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다.

17) 《龍潭遺詞》龍潭歌

18) “惜哉 於今世人 未知時運”(《東經大全》布德文)이라 한 바와 같이 개벽의 때가 다다랐음을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절박함의 한 표현이라 볼 수 있다.

19) “나의 일은 天地를 開闢함이니 곧 天地公事라”(《甌山天師公事記》8쪽)

20) 《대순전경》초판, 9-9.

21) “나는 三界大權을 主宰하야 先天의 度數를 뜨더긔치고 後天의 無窮한 運命을 열어 仙境을 세우려 함이라.”(《甌山天師公事記》9쪽)

22) 《대순전경》초판, 9-1.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말세가 되어 영영 파멸밖에는 길이 없다고 하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노니... 지금은 묵은 세상의 끝이요 새 세상의 처음이 되어...”²³⁾

소태산은 현실을 “묵은 세상의 끝이요 새 세상의 처음”²⁴⁾이며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바야흐로 동방에 밝은 해가 솟으려는 때”²⁵⁾라 하여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함으로써, 이 시기를 일대전환의 시기로 인식하고 있었던 바, 이는 소태산이 후천개벽의 역사의식을 전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소태산에 의하면 앞으로 오는 세계가 대명천지요 양 세계요 크게 문명된 세계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정신개벽이 수반된 이후라야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수운·증산 등의 후천개벽사상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²⁶⁾ 그러나 수운과 증산이 주로 운도론적인 면이 강한 데 비해, 소태산은 물질개벽과 정신개벽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²⁷⁾

결국 이 시기는 선후천이 바뀌는 일대변혁의 시기이므로 정신개벽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며 따라서 마음자세의 개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궁극적 행복은 결국 정신 세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Ⅲ. 이상세계로서의 후천선경과 이상적 인간

후천선경의 이상세계는 각각의 신종교의 교리개요가 지향하는 최종적인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수운·증산·소태산의 순으로 그 이상세계와 이상적 인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수운이 설한 이상세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개벽이후의 이상적 세계상은 수운의 종교체험과 유교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그려지고 있다.

수운이 상정한 신선세계는 ‘효박한 세상’²⁸⁾에 ‘금수같은 세상사람’²⁹⁾이라는 하원갑의 불

23) 《대종경》전망품19.

24) 《대종경》전망품19.

25) 《대종경》전망품21.

26) 《대종경》변의품31.

27) 소태산이 제시한 물질개벽은 자연과학이 고도로 발달된다는 의미로서 과학문명을 지칭한 것이며, 정신개벽이란 인간의 정신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룩한 종교나 도덕·사상 등 정신문화 현상 일반을 가리키는 것이다.

28) 《龍潭遺詞》夢中老少問答歌

29) 《龍潭遺詞》夢中老少問答歌

완전한 상태가 자신의 무극도로 인해 ‘春三月 好時節’³⁰⁾, “春來消息應有知 地上神仙聞爲近”³¹⁾의 상원갑의 세상으로 완전히 전환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선세계를 살아가야 하는 인간은 어떠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는가.

시간대로 시행하셔 촌촌촌촌 가라치면 무궁도화 다 던지고 포덕턴호 홀 거시니 촌제도
법 그 뿐일세 법을 정코 글을 지어 입도호 세상 스롭 그날부텀 군즈 도야 무위이화 될
거시니 디상신선 네 아니나³²⁾

이에 따르면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제로부터 받은 무궁한 도를 잘 수련하고, 글을 지어 사람들을 가르치고, 법을 정해서 널리 퍼라고 하였다. 그러면 온 천하에 퍼질 것이고 이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군자가 되고 신선이 될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동학은 ‘다시 개벽’이 이루어질 시점에 맞추어 천리에 순응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는 말세이고 그렇게 된 원인은 천도를 바로 깨달은 군자가 없다는 것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군자를 양성하는 것이 말세를 극복하는 시원이 되었던 바, 군자양성을 위해 개인적인 수도를 강조할 수 밖에 없었다.³³⁾

한편, 수운은 시천주 주문으로 마음을 닦아 현인군자가 되어야 하고, 도성입덕의 경지에 이르러야 함³⁴⁾을 강조함과 아울러 성경(誠敬)의 자세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³⁵⁾ 이는 개벽의 과정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를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를 바르게 하는(守其心 正其德)’ 수도에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곧 지극한 종교적 자세를 유지해야 그 목적에 이를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수운이 목적인 것은 천리를 거스르는 혼돈과 무질서한 세상에 하늘님의 존재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敬天命·順天理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수운이 제시하는 후천의 세계는 ‘억조창생 많은 백성 태평곡 격양가’³⁶⁾를 부르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도성덕업을 이룬 군자가 되어 신선세계로 동귀일체하는 사회였다.³⁷⁾

30) 《龍潭遺詞》安心歌

31) 《東經大全》訣

32) 《龍潭遺詞》教訓歌

33) 吾心卽汝心也 人何知之 知天地而無知鬼神 鬼神者吾也 及汝無窮無窮之道 修而煉之 制其文教人 定其法布德 則令汝長生 昭然于天下矣(《東經大全》論學文)

34) 느는 도시 밋디 말고 호닐님을 미뎃셔라 네 몸의 모셔시니 스근취원 호단 말가 너 역시 바라기는 호닐님만 견여 밋고 회몽 못호 너의들은 셔치은 아조 폐코 수도호기 힘쓰기는 그도 또한 도덕이라 문장이고 도덕이고 귀어허스 될가보다 열세즈 지극호면 만권시서 무엇호며 심학이라 호여스니 불망기의 호엿셔라 현인군즈 될거시니 도성입덕 못 미칠가(《龍潭遺詞》教訓歌)

35) 誠之又誠 至爲天主者 每有中 不順道德者 一一無驗 此非受人之誠敬耶(《東經大全》布德文)

36) 《龍潭遺詞》夢中老少問答歌

37) 《東經大全》布德文

증산이 설한 이상사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증산사상에서의 이상경은 地上仙境이다. 증산은 후천에서는 모든 사람이 신선이 될 것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이 선경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가 후천개벽을 위한 종교활동을 하였던 목적이 바로 “後天의 無窮한 運命을 열어 仙境을 세우라함”³⁸⁾이었다.

증산이 설한 후천의 이상경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後天에는 천하일가하야 威武와 刑辟을 不措하고 造化로써 중생을 理化할지니 居官者는 직위를 隨하야 化權이 열림으로 逾分僭越의 폐가 업고 주민은 冤恨 克虐 貪淫 曠痴와 모든 번뇌가 그침으로 聲音笑貌에 平和가 洋溢하고 動靜語默에 합치하며 衰病死葬을 免하야 불노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폐하고 美味와 珍衣가 所要를 隨하야 寶盒에 化現하며 모든일은 자유욕구에 응하야 天神이 隨從하며 雲車를 타고 碧空에 飛翔하야 適遠涉險의 具에 用하고 天門이 나직하야 升降이 自在하며 知見이 迴澈하야 過去未來現在十方世界의 一切事를 통탈하며 水火風三災가 屏跡하야 楨祥이 무르녹아 淸和明麗의 樂園으로 化하리라.³⁹⁾

위의 내용은 후천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인류문명의 통일적인 양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서, 정치적·경제적 이상이 실현됨과 아울러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해탈과 함께 한층 진화된 인간의 경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수화풍 삼재가 없어져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인 이상적인 자연환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후천은 덕을 위주로 하는 성인의 통치시대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선이 실현될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⁴⁰⁾ 또한 후천의 남녀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그 능력과 역할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되어 모든 사회적 권리가 남성과 같아지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⁴¹⁾

그 밖에도 일반 민중들의 생활과 관련지어 후천의 이상세계를 설명하였다.⁴²⁾ 요컨대 증산의 후천상은 이상적인 성인의 정치가 실현되어 균형과 상생이 실현된 사회를 이루며, 일상 생활도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상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38) 《甌山天師公事記》 9쪽.

39) 《대순전경》 초판, 9-12.

40) “先天 英雄時代에는 罪로써 먹고살며 後天 聖人時代에는 善으로써 먹고사나니 罪로써 먹고 사는 것이 長久하랴 善으로써 먹고사는 것이 長久하랴”(《대순전경》 초판, 4-65)

41) “몇 千年동안 깊이깊이 갇쳐 있어 男子의 玩弄거리와 使役거리에 지나지 못하던 女子의 冤을 풀어 正陰正陽으로 乾坤을 짓게하려니와 이 뒤로는 禮法을 다시 꾸며 女子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함부로 男子의 權利를 行하지 못하리라”(《대순전경》 3판, 6-133)

42) “불 때지 않고 밥을 지어 먹으며, 손을 흠을 묻히지 않고 농사 지으며, 기차도 화통없이 몇 만리를 삼시간에 달리며, 문고리와 옷걸이도 황금으로 만들고 신도 금당혜를 신으며, 곡식종자도 한번 심어서 베어들인 뒤에 해마다 그 뿌리에 움을 길러서 걷어 들이고, 아무리 박전이라도 옥토가 된다”(《대순전경》 6판, 5-18)

그렇다면 후천선경을 살아가는 인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증산에 있어서 인간은 ‘선령신(先靈神)들이 육십 평생 헤아릴 수 없는 공을 쌓아서 하늘로부터 얻어낸 존재’⁴³⁾로서, 인간은 최소한 선령신, 다시 말해 천계-신명계-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관계체로서 설명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세속적 지식과 재리에만 어두워지는 인간에서 탈피하여 천·지·인 삼계의 이법에 따라서 생을 영위하는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인간상이 곧 도덕군자, 진인(眞人), 신인(神人)이요, ‘하늘사람’이라고 일컫는 인간상이니 이것이 ‘인존’의 인간관념인 것이다.⁴⁴⁾

인존은 인간이 천지인 삼계의 우주적 관점에서의 이해를 통할 때, 비로소 그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天尊과 地尊보다 人尊이 높으니 이제는 人尊時代니라”⁴⁵⁾

이는 곧 개벽과정에서는 인간이 주체적으로 역할을 담당하게 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自古로 上通天文과 下達地理는 잇섯스나 中通人義는 업섯나니라”⁴⁶⁾라는 말을 통해, 이제는 천문과 지리와 함께 인의를 깨우쳐야 하는 등의 전인적 모습을 갖추게 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증산에게는 인간의 주체적 역량의 범위가 천지, 운명 등에 좌우되지 않을 정도로 넓혀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곧 무궁한 가능성의 존재로서의 인간이 그 스스로를 그의 삶에 있어서 주체적이며 자율적인 결정자로서의 존재로 규정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先天에는 謀事는 在人하고 成事는 在天이라 하였으나 이제는 謀事는 在天하고 成事는 在人이니라.⁴⁷⁾

증산의 사상에서 ‘모사재천(謀事在天) 성사재인(成事在人)’ 규정은, 개벽의 과정에서는 모든 것이 인간에 의해 결정되고 발현된다는 뜻으로써,⁴⁸⁾ 인간은 전체구조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소태산이 설한 후천의 이상세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43) 《대순전경》 3판, 3-64

44) 윤재근, 대순사상의 인간형성이론,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55쪽

45) 《대순전경》 초판, 8-29

46) 《대순전경》 초판, 8-65

47) 《대순전경》 3판, 6-105

48) 배용덕, 〈증산교의 후천개벽사상〉 《韓國近代民衆宗教思想》, 서울: 학민사, 1983, 84-86쪽

소태산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사회를 대명천지·양세계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의 구체적인 모습을 선천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 세상의 정도는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바야흐로 동방에 밝은 해가 솟으려 하는 때이니, 서양이 먼저 문명함은 동방에 해가 오를 때에 그 광명이 서쪽 하늘에 먼저 비침과 같은 것이며, 태양이 중천에 이르면 그 광명이 시방세계에 고루 비치게 되나니, 그때야말로 큰 도덕세계요 참 문명세계니라.⁴⁹⁾

당시의 민중이 처한 상황이 일제치하의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결코 실망하지 말 것을 민중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 그리고 정신적 방면으로는 장차 세계 여러나라 가운데 제일가는 지도국이 될 것⁵⁰⁾임을 전망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종교에 있어서도 “—인지가 훨씬 개명되고 도덕의 빛이 고루 비치는 날에는 모든 교회가 한 집안을 이루어 융통하고 화합하게 되나니라”⁵¹⁾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소태산은 후천의 이상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소태산은 “一圓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諸佛諸聖의 心印이며 일체 衆生의 본성”⁵²⁾이라 하여 인간은 부처이건 성자이건 범부 중생이건 그 구별에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일원의 진리에 계합되어 있는 진리적 존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러한 일원상의 진리를 體받아서 자기의 인격을 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써 三學(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공부법을 제시하고 있다. 삼학을 병진하여 지성으로 공부하면 학식있고 없는데에도 관계가 없으며 총명있고 없는데에도 관계가 없으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성불함을 얻게 된다.⁵³⁾ 즉 이 삼학공부를 통하여 원불교에서는 완전한 인격을 이룰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인간을 천지의 주인,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주만유의 중심적 존재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 원리를 바탕으로 일원의 진리에 합하게 되면 전인적 인격자가 된다는 것이다.

IV. 결 론

신종교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한 사회가 가치판단의 서열이 뒤바뀐 상태가 될 때 민중들은 신념체계의 재확립을 요구하며, 새로운 가치관을 모색하게 되는 데서 한 원인을 찾을

49) 《대종경》 전망품, 21.

50) 《대종경》 전망품, 23.

51) 《대종경》 전망품, 13.

52) 《正典》 제2편 제1장, 一圓相의 眞理

53) 류병덕, 《한국사상과 원불교》, 서울:교문사, 1989, 471쪽.

수 있다. 이러한 신종교는 제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 성립, 발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적게는 운동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행위, 태도, 가치관 그리고 그들 간의 상호관계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기존 사회와의 관계에 따라 사회질서에 변혁을 지향하기도 한다.

한국의 신종교는 조선후기 정치·사회적 혼란기에 출현한 종교들이 그 시원을 이루고 있다. 이는 신종교의 지도자들이 기존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과 함께 이상사회의 건설을 위한 사회변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 수 밖에 없었던 점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교조들이 느꼈던 사회변혁의 필요성은 후천개벽사상을 잉태하게 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이 시기의 민중들은 그들이 직면한 혼란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민중봉기 등의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초현실적인 이상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 후천개벽사상에 의지하기도 하였다. 이는 곧 민중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존재의미를 각성하게 원인을 제공함과 아울러 변혁적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종교의 종교사상은 각각의 종교적 이상향을 제시함으로써 혼란의 시기에 일반 민중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였으며, 신종교의 교조들이 설한 조선을 중심으로 한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종교적 주장은 결과적으로 일반 민중들에게 민족적·민중적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아울러 인간을 해석함에 있어서 인간존엄성의 기본 사상에 바탕한 새로운 인간 관념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존재에 대한 변화된 인식의 틀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이상세계와 이상적 인간에 대한 종교적 주장은 결과적으로 이를 신앙하는 민중들에게 대망의 종교적 이상사회를 그리게 함으로써 질곡의 삶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게 한 것이다.

참고문헌

《東經大全》

《龍潭遺詞》

《대순전경》 초판

《대순전경》 3판

《대순전경》 6판

《正典》

《大宗經》

《史記》

김홍철, 《증산교사상연구》, 익산: 원광대학교 출판국, 2000.

-----, 《한국 신종교 사상의 연구》, 서울: 집문당, 1989.

노길명, 《한국신흥종교연구》, 서울: 경세원, 1996.

- 동학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 《동학혁명백주년기념논총 上·下》, 1994.
- 류병덕, 《소태산과 원불교사상》, 익산: 원광대학교 출판국, 1995.
- , 《한국신흥종교》, 익산: 원광대학교 출판국, 1992.
- , 《한국사상과 원불교》, 서울: 교문사, 1989.
- 류병덕 편저, 《원불교사상의 전개 上·下》, 서울: 교문사, 1990.
- 윤석산, 《동학사상과 한국문학》,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9.
- 이상호, 《甌山天師公事記》, 1926.
- 이정립, 《증산교사》, 김제: 증산교본부, 1977.
- 최동희, 《동학의 사상과 운동》,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0.
- 한기두, 《원불교 정전연구》, 익산: 원광대학교 출판국, 1997.
- 홍범초, 《증산교개설》, 서울: 을지문화사, 1982.
- 황선희, 《한국근대사상과 민족운동》 1, 서울: 혜안, 1996.
- 강영한, 한국 근대 신종교운동의 성격과 사회변동,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김경재, 〈수운의 시천주 체험과 동학의 신관〉, 《동학연구》 4, 한국동학학회, 1999.
- 김 탁, 증산 강일순의 공사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5.
- 박명규, 〈동학사상의 종교적 전승과 사회운동〉,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제7집, 1987.
- 윤석산, 〈東經大全研究〉, 《동학연구》 3, 한국동학학회, 1998.
- 윤이흠, 〈韓國民族宗教의 歷史的 實體〉, 《한국종교》 23, 1998.
- 윤재근, 대순사상의 인간형성이론,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황선명, 〈後天開闢과 鄭鑑錄〉, 《한국종교》 23, 1998.

원고접수: 2006년 5월 3일 1차심사: 5월 10일 게재승인일: 6월 15일

연구자 소개: 윤기봉

① 전공: 종교학, 인도철학 / 소속: 대전대학교

② 관심영역 : 한국 신종교, 종교문화 일반

③ 주요논문 : <불교권화사상의 한국적 전개와 대순사상연구>, <근대에 있어서 한국종교의 개혁사상 - 대순진리회를 중심으로>, <대순진리회의 의례와 믿음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④ E-mail : yungibong@hotmail.com

Abstract

**View of an ideal human in Korea new religion
- attaching importance to Jeung-San thoughts -**

Yun, Ki-Bong

Deajin University

The new religion in modern time of Korea have been developed in several directions during almost 100 years. Tracing back to their origins, they are considered to be formed in primary concepts and thoughts of many religions emerged from the latter period of time in Cho-Sun Dynasty that had been fallen into utter confusion. Their religious background would be deeply related with the strong critical view of their leaders on ruling ideology in society at its time. Furthermore, There had been raising a large range of the necessity of the change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deal society. Under the desire about the building up an ideal, it is very important to bring on the new concept of human being on the basis of the fundamental idea on the dignity of human nature on the purpose of offering the model of knowledge and thoughts about human being. The religious assertion on the ideal concepts about human and society eventually provided people with the significant life force due to the intense ardent toward a religious ideal.

Key words : New religion, Gae-byuck(開闢), Gun-ja(君子), In-jon(人尊), an ideal world.